

# 2019년도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9. 10. 10(목) 11:3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19년도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 38작품으로, 초연부문 23작품, 재연부문 15작품이었다. 심의의 기준을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곡가들의 예술적 역량이 십분 발휘된 작품이 많았고 앞으로 한국의 예술음악을 이끌어 나갈 방향, 새로운 비전 등이 보여 긍정적이었다. 현대 작곡기법의 익숙한 구사, 악기구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독창적인 표현력, 상상력 등 오케스트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따른 해석이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또한 다소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특히 작곡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한 한계가 느껴지는 곡도 있었으며 한국의 장단과 선율을 이용해서 작곡한 작품들이 많이 보였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음향과 구조를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국악적 요소를 가미하되 현대음악과 한국적 색채를 결합하고자 노력한 작품들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악보로 표기된 소리와 실제연주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곡가들이 좀더 더 치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창제의 작품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한번 연주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연주되고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